

여성주의매체

앨리스



동상이몽 同床異夢 - 연애이야기

- 13대 앨리스 ACTs 총여학생회 -

여성주의매체

앨리스



동상이몽 同床異夢 - 연애이야기

- 13대 앨리스 ACTs 총여학생회 -

시 15월



이것이 바로 - 사랑의 힘이다

이것이 바로 - 사랑의 힘이다

순서

순서 1

☆동상이몽同床異夢 - 연애야기 3

웬 연애?! 4

연애권하는사회 6

연애 권하지 말기 7

연애(戀愛)란... 8

감정의 경계 10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11

불평등한 연애 - 권력관계 14

뒤틀린 연애 16

여성, 욕망을 말한다. 19

☆새로쓰기 21

다르게 말하기 23

미디어비평 25

행사 다시보기 28

지명수배 29

교수성폭력뿌리뽑기 30

익숙해진 폭력 32

다르게보기 34

☆함께해요 36

☆뒷이야기 37

웬 연애?!

by 白李

#유리 파편처럼 부서지는 5월의 햇살이 눈으로 쏟아져 시린 눈물이 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사람들은 내던지는 말이 있다.

"이런 날은 애인이랑 손잡고 놀러가야 하는데~?"

날씨가 좋으면 좋은 거고, 놀러 가면 혼자 놀러가도 되는데
또 친구랑 놀러가도 재미있을 거다.
허우대는 얼얼한데 '혼자'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성격 더러울 거다"라는 이상한 공식이 성립된다.

꼭 연애를 하고 있어야 성격 좋~은 사람인가?
연애하는 놈들 중에도 성격 더러운 애 많던데.

#연애를 하고 있는 내 친구들을 봐도 그닥 즐거워 보이지 않고,
실제로 연애를 하고 있는 나조차도 끊임없는 고민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연애를 하면서 느껴지는 답답함, 불쾌감, 불안감, ...
나만 느끼는 걸까?

사소한 이야기라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가볍게 지나가지 말자.
연애를 하는 모든 여성들이 똑같이 느끼는 "답답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그 안엔 '계획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
다는 증거다.
같이 한번 폭로해 볼까?

#세상엔 한 가지 종류의 연애만 있는 게 아니다.
"연인"을 상상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지 몇번도
될까?
지극히도 소위 정상적이라고 말해지는 연인은
키 크고 잘생긴 남성과 아담(?)한 체격에 생머리를 휘날리는 여성을 상상

할 것이다.

암소사.

가능성을 달지 말자.

다양한 연인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자.

이성애 사회에서 유쾌하지 못한 그러나 유쾌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연애권하는사회

by 파란

여대에 다니는 친구네 학교 옆에는 최근 극소수의 여학생을 받기 시작한 군인을 길러내는 학교가 있다. 여대에 다니는 그 친구가 해 준 이야기이다. "우리 학교 3대 바보가 있는데, 그 학교 사람이랑 미팅을 한번도 못한 사람, 한 번 미팅하고 또 미팅하는 사람, 그 학교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이야. 1학년 땀 이 얘기 들으면서 막 웃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 바보래두!!"

연애에 관한 글을 청탁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 얘기가 떠오른 이유는 뭘까?

사람들은 종종 미팅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연애에 있어서도 저런 논리를 적용한다.

"재 사귀는 사람 있어?"

"아니, 없을 걸..."

"정말? 왜? 막 이성에게 강하게 어필하게 생겼는데..."

"그러게...생긴 거와는 다르게 성격이 안 좋은가보지...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연애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에 연애를 해 봤는지, 하고 있는지를 집어넣곤 한다. 그에 따라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 경험이 없으면 낭패다. 순식간에 가치절하 당한다.



아, 피곤하다. 연애 권하는 사회.

연애 권하지 말기

by ★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렛을 받아보기 위해, 사랑하나 받아보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외롭게 보내지 않기 위해, '연애를 하고 싶다'는 욕망은 조립된다.

뒤틀린 연애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견어치우지 못하게 하는 저 수많은 광고들이 나에게 핑크빛 사랑을 해야 한다고 속삭여. 사소하게 발생하는 그 사람과의 감정싸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연애를 하면서 나를



잃어가는 것 같다는, 친구관계가 소원해져가는 것 같다는 그런 고민들도 잠깐,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커플링과 커플티, 커플요금제 만으로 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왜 연애를 하지 않는 거냐고 의아해 하며 묻는 당신들의 질문에, 아무문 제 없던 나의 앞상은 애인도 없는 불쌍하게 흩부러진 나날들이 되어 버리고 난 갑자기 연애도 못하는 성격적 결함이 있는 수리해야하는 물건으로 전락. a/s센터에 알려지기 전에 잠깐 발버둥, '이 봄날에 연애나 하고 있는 너는 뭐니?' 라고 되물려 물어본다면 당신 질문의 허점을 조금이나마 눈치챌 수 있을까?

각자의 인생에서 연애의 중요도와 방식은 다른 것. 그 스펙트럼을 모두 뭉쳐 까만색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는 당신들의 노력에 혀를 내두를 뿐.

내가 하고 싶은 시기에, 하고 싶은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내 버려 두기.

술 권하듯 연애 권하지 말기

연애(戀愛)란...

by 사이

음.. 연애란 무엇일까.. 나도 아직은 잘 모르는 단어이다.

사전에서 찾아보니 어떤 이성(異性)에 특별한 애정을 느끼어 그리워하는 일, 또는 그런 상태..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성(異性)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 -_-a

이 사회는 이성애중심주의인 사회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연애를 하면 남녀가 사귀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다.



때는 2001년.. 나는 연예인을 좋아하고 팬픽을 즐겨 읽는 고등학생이었다. 재미있는 팬픽이 있는 곳이나 보고 싶은 팬픽이 있는 곳에 가입해서 감상도 남기는 네티즌이었다.

어쩌다 팬픽클럽의 정팅에 참여했다가 알게 된 언니가 있었는데, 이후 그 언니가 연예인 코스프레를 하는 팀에서 스텝을 구하는데 해볼 생각이 있다고 권유를 했다. 그래서 난 한다고 했고, 나는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이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모 때 모여 친목도모하고 저녁이 되고 몇 명은 집에 가고 남은 사람들끼리 있는데 나보다 더 어린동생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언니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여 언니들은 2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술을 사들고 여의도공원에 가서 술을 마셨다.(난생처음..술이란것을..ㅎㅎ)

이날 내가 본 것은 한 여자아이가 사랑하는 여자아이와 헤어지게 되어서 너무 슬프다고 통곡하는 모습과 언니들이 이 아이에게 말하는 것은 '이반이 뭐야? 말해봐' 아이 왈,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T_T' 계속 이 말만 되풀이하며.... 이 이후로는 난 듣지 못했다. 이아이가 너무 많이 취해서.. 여의도 공원에 완전 드러누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코스프레팅에서 이반커플들이 생겼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그래도 이 애들이 나중에 커서는 남자를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이성애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평소에 '연애는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빠를 보고, 또는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연애는 남녀 둘이 나와서 하는 내용이 다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다 나오면 '아! 누구랑 누구랑 좋아하겠구나~ 누구랑누구랑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이성애중심적인 사고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하는 애기는 서로 좋아하고 데이트하고 아끼는 것 그리고 헤어졌을 때의 그 아픔을 보면 이성끼리의 연애나 동성끼리의 연애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내 말은 동성애자들의 연애를 '동성애는 정신병이니깐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는 동 '동성애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비난의 말 또는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느니' 하는 무지한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즉 동성끼리도 사랑할 수 있고 이성끼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 사회에는 이성애도 있고 동성애도 있다. 아무리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존재하는데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연인들이 너무 부럽고, 다들 이쁘다. o(>_<)o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연애의 정의를 바꿔야 겠다.

-누군가에 특별한 애정을 느끼어 그리워하는 일, 또는 그런 상태..ㅋㅋ



감정의 경계

by 윤통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
사랑한다는 말을 내 뺨을 때 혹시나 흔들리는 내 감정이 보일까봐 먼 산
을 응시하는 비겁한 내 눈, 위태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에 이제는
중독이 되어서 더 이상 악발이 받지 않아
이렇게 좋은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녀와의 즐거움에 중독이 되어 혼자 있는 시간이 이리 따분한데.

...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사랑한다는 말을 낭발할 수 있는 지금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그녀와 나이기 때문
여성과 여성인 그녀와 나이기 때문

그것은 사랑이었다. 라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게 되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by film

나는 동성애자다.
그리고... 레즈베언이다.

지금도 반복적으로 모니터를 한번 보고,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글을 써야한다-집에서는 절대 글을
쓸 수 없으며, 외부에서도 글쓰기 어렵긴 마찬가지이다-. 내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든 없든,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내 모니터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혹시라도 그녀/그들이 위의 문장을 보게 될까 걱정이 된
다. 아니, 무섭다. 왜. 그러냐고. 쉽게 말하지 말자. 그게 현실.이니까.

처음 "내가 그녀를 어떤 감정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
작함과 동시에 나는 온갖 생각으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왜 하필이면
동성인지. 왜 여자인지. 나의 무엇이 문제인지-정신과 상담을 해야 하는
걸까? 회개해야 하나? 내가 드디어 미친 걸까?- 또는 그냥 스쳐가는 감
정이겠지. 한 순간의 동경일거야. 절대 사/랑/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나의 감정에 대한 의혹과 부정 그리고 후회(어쩌면 두려움)가 섞인 어두
운 고민에 빠져 허우적 대야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대체 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타인(이성異性)을 사랑하게 된 경우 정신과
상담이나, 종교로의 회개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죽어버려야지 라는 생
각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나의 '사람을 사랑할 권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렸다. 사람들은 동성
애자에게 '타인을 사랑할 권리 따위는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그들의 사랑
할 -권리-를 박탈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엄청난 혐오감까지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피눈물 나는 현실이다. 존재의 가
벼움이라면 차라리 나올까? 이건 존재 자체의 부정을 강요한다. "이건 절
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당/연/함이 그녀/그(동성애자)에게 얼마나 잔

인한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언제부터 누가 그런 당연함-여성은 남성과 남성은 여성과 함께 세트(?)여야 한다고 규정한걸까?

"남자친구 있어요?"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종류의 고민- "아니오"라고 말하면 내가 사귀는 사람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할거고, 그건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된다. "예"라고 대답하면 난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걸 부정하게 된다. 나는 나와 사귀고 있는 그녀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는 건 더 싫다. 진절머리 난다. 그/그녀들의 당연한 이성애(異性愛) 중심의 사고가.

그래도 요즘은 "예, 남자 친/구/는 않아요" 혹은 "아니오, 애인(愛人)은 있는데요"라고 넉살 좋게 웃어넘기곤 한다. 간이 커졌다고 해야 하나, 오기일지도 모른다. 아무렇지 않게 내 가슴에 칼을 쏘서대는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작은 저항의 의미로 투덜대곤 한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 성정체성을 알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어쨌든 그/그녀들의 이성애 중심의 말은 가차 없이 내 심장을 추뵈 떠나니까.

나와 같은 성정체성을 지닌 그녀/그들의 존재에 무게감을 주고 싶다. 한창동안을 침묵하도록 강요된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 "사랑할 권리"가 있다. 항부로 우리의 존재를 가볍게 하지 말라. 곳곳에 그녀/그들 그리고 내가 있다는 걸 더 이상 부정하지 말자.

-조용히 아주 조그맣게 혼자 속삭여야 한다. 아니면 입에 담지 말아야한다.-이제는 그 따위 명령에 귀 기울이며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스스로를 긍/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귀게 되었다고 알했을 때 축하받을 수 있는. 두 손 잡고 밝은 낮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 사랑 사진이 든 지갑을 실수로 두고 와도 초조



해지지 않는, 사소한 얘기들이 적혀있는 일기를 동생이 몰래 훑쳐봐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는, 친구에게 내 애인을 아무렇지 않게 소개시킬 수 있는, 같은 집에서 동거인으로서가 아닌 배우자로서 함께 살 수 있는.

이성애자들이 당연하게 향유하고 있는
그러나 동성애자들에게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영역

당신은 얼마나 지금의 영역에서 자유로운가.....



by 신치

대학이란 공간에 들어와서, 세 번의 연애를 했다. 1학년,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두 번의 연애, 대학 2학년 겨울방학, 어느 정도 대학 문화에 익숙해지고 또 실증 날 때 품었던 연애.

이들, 내가 겪은 연애의 공통점은 셋 다, "사귀었다"라는 말을 하기 민망할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 사귀었다. 일주일, 한달, 그리고 또 일주일. 세 번 다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이야기 한 것이었다.

대학이란 곳에 들어와, 처음에 남자선배들에게 '오빠'란 호칭을 사용했고, '연애 뒤집어보기'란 강연회를 통해, 나의 호칭은 '오빠'에서 '선배'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 무렵, 첫 번째 사귀었던 선배랑 헤어질 때쯤이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무언가 싫어서 헤어지긴 했지만, 도대체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기란 어려웠다. 처음에 싫어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사귀는 것이었는데, 난 도대체 왜 그렇게 빨리 그 호감이 사라진 것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실패했던 그 연애들의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다.

세 명 모두, 계속 알고 지내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였다. 그래서 사귀 이후에도 나의 호칭은 늘 "오빠" 또는 "선배"였다. 그리고 그들은 늘 그래왔듯이, 나의 이름을 불렀다.

"오빠" 혹은 "선배"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나는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호칭들은 참 무서운 역할을 한다. 정장을 입었을 때와, 편한 청바지를 입었을 때, 나의 행동거지가 옷에 따라 달라질 수 있듯이, 나의 언어, 호칭에 따라서 그 관계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연애를 하는 사람은 서로 평등하다. 나이차가 많이 나건 적게 나건 간에 두 사람의 위치는 사귀게 됨으로써 같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 내가 '선배'라는 호칭과 존댓말을 쓰게 됨으로써, 늘 그 사람의 아랫사람이 되었고, '오빠', '선배'라는 호칭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늘 만남이나, 평소 연락하거나, 스킨십을 하는데 있어서도, 나는 내 연애의 주체가 되지 못했고, 늘 그에 의해서, 움직이는 비주체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게 되었다.

사귀었던 사람들 중 한 선배의 경우에는 사귀는 내내 정말 어딘가에 내가 갇혀 있는 느낌이었다. 거의 한 시간에 한번 꼴로 하는 전화나, 매일, 매일의 만남,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학기 시간표를 복사해 달라는 그 선배의 말에 나는 두손 두발 다 들었다. 원래, 어딘가에 구속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나로써, 그 선배는 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더군다나, 그 선배가 직장인이고 나는 학생이라서 생기는 경제적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거의 늘 그 선배가 돈을 내곤 했다.-들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들었던 것이다. 사귀는 내내 편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사귀는 사이가 되기 전, 정말 전·후배로 지내는 게 더 편했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느낌들로 인해, 대학에 들어와 경험했던 세 번의 연애는 모두 끝이 나게 되었다. 내게 연애에 있어 많은 교훈들을 남기고 말이다. 또 다시, 연애를 하게 된다면, 혹은 나이가 많다면, "선배"라는 호칭 대신, '누구씨'

란 단어나 그냥 이름을 부를 것이다. 호칭이나 말에서 오는 두 사람간의 과리감을 없애고 상·하적 관계를 평등한 위치로 놓기 위해서 말이다. 또, 서로 존대를 하거나, 혹은 둘 다 반말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 하나는 반말을 하고 존대를 하는 것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평등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연애의 주체가 될 것이다. 사실, 나는 그동안,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고 잘 표현하지 못했고, 만나고 만남을 주도하는데 있어서도, 늘 수동적이었다. 이제는, 내가 연애의 주체가 되어서, 좋아하면 좋아한다 라고 하고, 손잡고 싶으면 잡고 싶다고 하고 키스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또한 상대가 스킨십을 요구했을 땐, 하기 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주고, 정말 평등한 연애관계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너무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이기까지 한 이곳-에 없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부탁 한 가지

'난 다행이야, 난 행복한 거야'라고 생각할까봐 필자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 이것은 나만의 경험이 아닌 당신들의 경험이기도 하니까, 언제나 누구에게 닥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서 이 상처를 달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이라는 거북한 연민과 걱정도 거두어 주길

그 남과 그 녀, 어정쩡한 거리를 유지하며 시선은 엇갈리게 그렇게 최후의 독백을 하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시간의 압박감은 여러 가지 말린 이야기들과 감정들을 서둘러 고집어내게 했으며 원망과 분노, 아쉬움, 미련 등이 엉켜있던 나로서는 급하기만, 그냥 급하기만 했다. '그때 미안했어.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나도 그런 내가 무서웠어.' 이런 그 남의 자책 어린 사과로 아주 쉽게 분노는 정리해야 했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아보고 싶다는 욕구와 정체를 망설임으로 뒤돌려진 내 감정은 그 남이 돌아서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리해야 했다. 미안하다며 힘들게 돌아서는 그 남의 모습에 그 남에 대한 원망인지, 나에 대한 원망인지, 어떤 형질의 아쉬움인지 알 수 없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흐느끼며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번 안아주면 안돼요?'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던 이 말을 소리로 만들어내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한건,

그 남에게 들리지 않게 흐느끼는 내 호흡으로 내 몸의 떨림으로만 남겨두길 잘했다고 생각한건, 내 몸에 그 남의 기운을 더 이상 남겨놓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한건...

영청하게도 일년이 지나서야

만약 그 남이 그때 군대를 가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난 그 남에게 사귀자고 당돌하게 이야기 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남이 먼저 나에게 사귀자고 이야기 하게끔 교활한 작전을 펼쳤을지도 모른다. 옆에서 보는 이가 화가 나리만큼 착/했/던/ 그는 우리가 함께 머물렀던 그 공간에서의 모든 굵은일은 도맡아 하며 자신의 일은 완벽히 해내는 철지항까지 갖춘 외유내강, 술선수범의 전형이었다. 남에 대한 배려가 뛰어났으며 그리 반여성적이지도 않았고, 나에게 항부로 다가서지도 않았다. 그 남과의 외출에서 그는 옛날에 만났던 다른 남과 달리 내 손을 업적 잡으려 하지도 않았고, 내내 민망해 하고 쑥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곳에 단둘이 있지만 없었다면 난 아직도 그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곳 속으로 꾸물거리며 기어들어오던 그 남의 묵직한 손, 그 손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전에 강한 두려움의 진동을 하고 있는 내 몸. 내 목덜미에 닿는 그의 더러운 숨.



'눈을 떠야하는 걸까, 내가 자고 있는 줄 아는 거겠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계속 자는 척을 해야 하는 걸까, 이 사람이 나인 줄은 알고 이러는 걸까. 그래도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냥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게 더 슬플 거야.'

내 몸이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에도 그 지랄맞은 착한여자 콤플렉스는 작동하고 그 남을 이해하고 또, 그 남의 행동을 합리화하기에 바빴다. 날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는 비겁한 위로를 나에게 건네는 것 또한 잊지 않으며,

예기를 꺼낼까 말까 뒤척이던 날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보려 했던 무모한 시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대한 혼란. 이 모든 고민들도 여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버린 며칠 후 나를 둘러싼 풀리지 않은 공기를 머금고 입대를 앞둔 그를 만나 그 남과 그 녀, 어정쩡한 거리를 유지하며 시선은 엇갈리게 그렇게 최후의 독백을 했다.

뿌얼던 내 머릿속의 공기를 청정기에 집어넣어 그때의 혼란을 성폭력이라 규정하기까지 일년여가 걸렸고, 그 남에게 그때 너의 행동은 성/폭/력/이



었다라고 말하기까지 일년여가 걸렸다. 그리고 그 남의 대답을 듣고, 흘러질 눈물도 아까워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날 왜 그랬던 거냐고, 기분이 나빴었다고 딸리는 목소리로 귀여운 투정을 했을 때는 '정말 미안하다' 했었고, 2년여가 지나 타는 듯한 입술로 성폭력이었다고 얘기 할 때는 '그딴 게 성폭력이면 무엇이 성폭력이 아니겠냐, 니가 날 유혹한 거다, 나도 당했다'라는 오기 섞인 무식함으로 맞섰다. 시작하지도 않았었던 새내기 시절의 연애는 이렇게 철없는 나의 마음을 원망하

며, 그 남에게 증오를 꽃으며 끝났다.

사랑했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그리도 힘들었다.

뒤척이던 날들과, 최후의 독백을 듣는 순간까지 난 그 남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대를 하고 얼마간도 난.. 그 남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을 좋아했던 나의 감정, 나를 좋아했던 그 남의 빗나간 감정이 그 남의 행동에 연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걸 알기까지 꽤 오랜 계절의 변화가 필요했고 또, 그런 남을 내가 어떻게 좋아했는지 도대체 왜 좋아했는지 내 눈과 귀와 딸림을 질책하는 나날은 더 오래 이어졌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윤곽이 뚜렷이 보이던 그 시점 나의 설레는 딸림은 아무잘못 없었다고 너털해진 내 마음을 쓸어안아 주면서도 난 아직도 그 따위 착한 인간들에게 미칠 내 감정이 두렵다.

얼마나 많은 그녀들이 좋아한다는 그 감정으로 가시밭길 걷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남 대신 자신에게 칼을 꽂아 들리지 않는 비명을 지르며 상처를 내고 있을까

여성, 욕망을 말하다.

by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자 셋, 남자 셋, 매일 모여서 놀던 친구들이 있다. 예전에, 누가 누구 좋아하고, 그러면서 놀던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당연히(?) 연락은 뜸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흘러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보고 우연히 초등학교 반창회를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에서, 예전에 어울려 놀던 녀석들 중 하나를 참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었고,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다시 시작 되었다.

대학 발표가 나기 전, 우리는 몇 번 만났고, 나도 그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도 내게 서로 호감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 놀러 다니면서, 그 아이는 내게 스킨십을 요구했고, 나는 한편으론 하고 싶은 맘도 있었지만, 하지는 않았다. 웬지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괜히 값싼(?) 여자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못했다.



대학에 들어왔고, 그 아이와 나는 여전히 가끔 만나게 되었다. 대학이란 곳에 들어와서 그동안 몰랐던 성(性)에 눈 뜨게 되었고, 남성들 못지않게 여성들도 성적 욕구를 많이 느끼며, 또한 많은 여성들이 자위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성적인 욕구들은 숨길 것이 아니라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조금 더 내 자신에게 솔직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를 여러 번 만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그 아이와 키스를 하게 됐고,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날, 우린 키스를 하고 애무를 했다. 그 아이는 키스, 애무를 한 후에 섹스까지도 원해 왔다. 그러나 웬지, 섹스는 싫었다. 그때 뿐 아니라, 지금도 애무까진 좋지만 섹스는 싫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은 부족~ 그럴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스킨십까지만 했다. "난 어디까지가 좋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 하지만 내가 싫은 것에 대해 "싫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위에서 쓴 글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엔, 사회적 시

선들, 여자는 밝히지 말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고, 오히려 하면 값싼 여자처럼 보일 것 같았다. 남들의 시선이, 사회적 인식들이 나를 억압해 왔다. 나 자신이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No"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여성의性を 알게 되었고, 여성들도 그녀들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분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섹스는 싫지만, 애우는 좋다 라고 이야기 한다. 남들이 뭐라든 내가 원한다면 "Yes" 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내가 된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 -애인은 요부, 부인은 숙녀이길 바라는-과 이러한 남성들을 길러내는 사회에서 이제 우리 여성들은 당당하게 우리에게도 성적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우리 모두 함께 모여性に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



☆새로 쓰기

다르게 말하기 - 만화

미디어 비평 - 범죄의 재구성, 폭력의 재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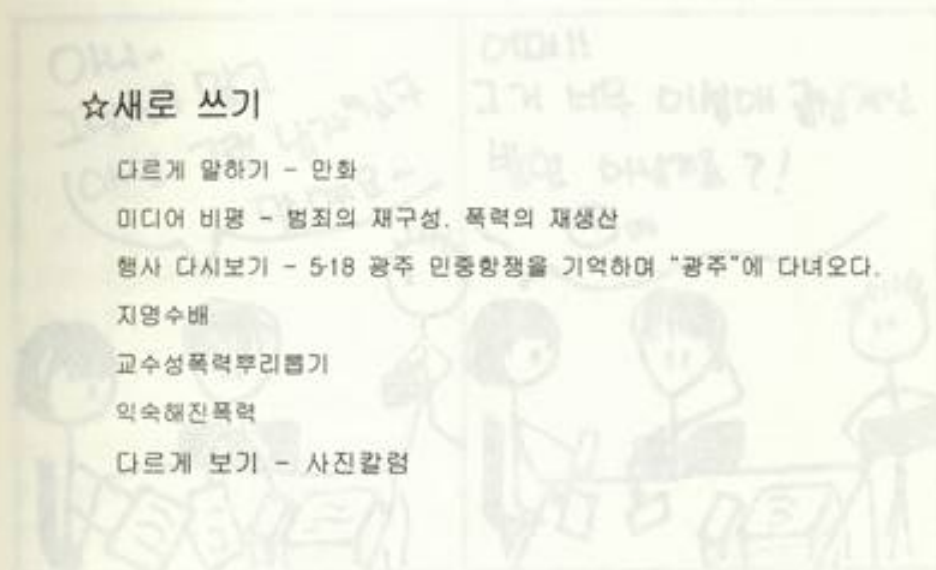
행사 다시보기 - 5-18 광주 민중항쟁을 기억하며 "광주"에 다녀오다.

지영수배

교수성폭력후리뽑기

익숙해진 폭력

다르게 보기 - 사진칼럼





~v ... by 낭이

범죄의 재구성, 폭력의 재생산.

by 白李



-그런 의도는 없었나?

'영화'의 '영'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라 불러도 좋다. 기술적인 면이든 스토리 구성 면이든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은 해야겠다. 지금도 무수히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는 폭력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영화뿐 아니라, TV, 라디오 등 많고 많은 방송 매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아주 쉽게 잘못된 사고의 틀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는 많은 영화들은 화려한 -그리고 알도 안되는- 폭력을 "미화"시키기에 바쁘다. 조폭마누라, 친구, 살인의 추억, 태극기 휘날리며, 살미도 등의 영화에서 보여 지는 폭력은 인간의 소통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극적이고도 '멋진'것으로 얘기되어진다. 그리고 그 안에 늘 폭력의 대상이 되는 "여성"을 발견할 때 마다 분노로, 혹은 공포로 눈물을 삼키곤 한다.

최근에 본 영화 '범죄의 재구성'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된 잔인한 폭력에 노출된 나 자신을 발견 했을 때 난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다. 아마 혹자는 영화를 그런 '협소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길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늘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반성하기는커녕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재생산하는데 촉매 역할을 하는 그들이 '협소하다'고 말하고 싶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말과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데 영화에서 소위 '정의'로운 것을 말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는 인권이 있다면 그 영화는 진정 '정의'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 많은 여성을 향한 억압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영화에서 보여 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실을 보여 준 것이라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에게 있어선 -당연한 것(그들은 그

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녀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이기 때문이다.

삼시 세끼 밥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성에 대한-또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폭력도 자연스럽도록 만들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하겠지만, 분명히 피해자는 있다.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

-폭력에 폭소를 터뜨리는 그들의 폭력.

영화 범죄의 재구성 장면 내내 흘러나오는 욕설-씨발, 씹, 좆, 병신,-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쓰이는 것들이다. 여성비하의 욕, 장애인 비하의 욕 등 나오는 욕만 보더라도 지독한 비장애인 남성 중심의 언어체계가 우리 생활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알 수 있다. 뒷자리에 앉아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영화를 즐기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 씨발 좆나 웃기지 않나 저 새끼."라는데 별쩍 일어나서 뒤통수를 갈겨주고 싶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영화 중간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한 여성이 잔인하게 구타당한 후 치워지는(1) 장면도 나온다. 영화의 스토리나 시나리오 구성상 그렇게 중요하게 카메라가 집중하지도 않았다. 너무나 쉽게. 맞고, 죽고, 치워지고, 지워지고, 그렇게 당해도 괜찮은 여성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취급되어져도 상관없다는 얘인가? 그 장면에서 전제된 건, 많다. 일단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건 아주 당연하다는 것, 그녀들은 '물건'이라는 것, 주체는 남성이라는 것,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 이런 의도하지 않은-사실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잔인한 전제에서 여성은 '성'노리개로, 폭력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 관객들에게도 역시 그 전제는 통용된다. 여성이 치워지는 장면에서도 폭소를 터뜨린 그 개새끼들이 시시덕거리는 걸 분명하게 들었으니, 한마디 던지고 싶었다. "재미있나? 너도 한번 맞아볼래? 저렇게 죽어서 치워져 볼래?"

그 폭력은 픽션(허구)이 아니라 현실이다. 폭력을 당하는 여성도 픽션이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네 주변의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상관없다는 건지....

폭소를 터뜨리는 그들의 폭력에 멍이든 맘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하지?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분노.

영화는 마지막 변명이 하고 싶었는지 후반부에 가서 한 여성이 사랑을 방자해 사기를 친 남성(앞에서 언급한 성매매 여성을 구타한 역할이다.)을 젖가락으로 살해하는 장면으로 '진실'을 얘기하려 한다. 하지만 역시나 찜찜함은 지울 수 없다. 마지막의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해결-복수-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시각으로 얘기되어진 여성의 복수는 통쾌하지도 않고, 격렬하지도 않다. 다만 무거운 발걸음에 짜증만 더했을 뿐.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대체 무엇이냐 말이다. 형제간의 애정? 남녀간의 애정? 사기집단의 말로? 싸움 잘하는 남성들의 갈증은 우정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 아니면, 착하게 살아가? 쉴 새 없이 연발되는 듣기 싫은 욕과 악자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면서 무슨 정의를 말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대중들의 입맛에 맞추고 싶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영화'라는 수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비판적인 폭력에 한껏 젖어 대중을 웃게 하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영화에 아직까지도 화가 난다. 또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화 속의 여성과 현실 속의 여성을 분리하면서 타자화 하는 것도 눈에 띄게 들어났다. 왜 영화 속의 여성이 특별한 케이스일 거라 생각하는 걸까? 성매매를 하는 여성, 구타당한 여성, 분노에 살인을 저지른 여성, 등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눈에 띄지 않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언니고, 누나고, 여동생이고, 친구이다.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계속 재구성 되는 폭력은 여성을 끊임없이 위협한다.

영화를 보고 분노와 공포에 떨며 땀속을 걷는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러웠다.

언제쯤 휘두르고 있는 폭력을 폭력으로 인정하고 반성할는지.

한숨만, 한숨만, 나온다.

우. 행사 다시보기

5.18 광주민중 항쟁을 기억하며 "광주"에 다녀오다.

by 신치

아주 옛날로 돌아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임진왜란부터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기록된 많은 혁명과 사건들을 거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 또 배우게 될 우리의 역사 교과서에 전쟁 당시, 혁명 당시, 항쟁 당시에 나라와 그녀/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웠던 많은 여성들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열사, 나라를 위해 절의를 굳게 지켜 죽은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주로 남성 열사에게만 붙게 되는 수식어이다. 우리는 왜 유관순 열사를 열사라는 말보다 유관순 언니, 유관순 누나라 부르는 말들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일까?

그동안, 이러한 혁명이나 항쟁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때 소설책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었던 광주민중 항쟁 당시의 광주의 모습. 그것이 내가 알고 있던 5·18의 전부였다.

2004년, 5월, 5·18을 맞이하여 교양을 하고 광주에 다녀왔다. 많은 열사분들이 잠들어 계신 구묘역과 신묘역에서 나는 여성 열사의 묘비를 찾아다녔다. 아주 많은 묘역들 중에 여성은 극소수였다.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다. 5·18 기념사진 전시실에 붙은 사진들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은, 앞장서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여성들의 모습은 열심히 싸우다가 죽어간 이들의 시체를 부여잡고 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광주 시민이 하나가 되어 싸운 광주 민주항쟁 안에서 여성이 없었던 것일까? '그녀/그남'들 중 50% 정도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들은 5·18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절대 아닐 것이다.

하지만, 1970.80년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사회의 가부장성은 남성들만을 공적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었고, 큰 투쟁들을 남성들의 것으로만 생각했던 시대적 상황들은 광주민중항쟁이란 큰 틀 안에서 여성

들에게 투쟁의 방식으로 밥을 짓는 등의 역할들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또한 큰 투쟁의 틀 안에 여성들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그 시대적 상황 안에서 그녀들만의 성과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이러한 '투쟁'을 "투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들의 투쟁만을 투쟁으로 인정하는 과정들이 남성들의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눈으로 역사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5·18을 "쿠데타"란 이름에서 "혁명"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당시 주체적으로 움직였던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바라는 역할, 가정에서 어머니, 아내 등의 역할로 돌아가게 되어 그녀들이 주체적으로 5·18 안에서 그녀들을 이야기 하지 못했고, 대부분 남성들이 주체가 됨으로써, 많은 남성들만이 부각되게 되는 것이다. 그때 당시 그 사건들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가부장적 관정을 역사가이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자료들도 다 남성들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4년, 이제는 5·18 자체만이 아닌 그것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제되고 있는 그녀들을 이야기 할 때인 것 같다. 역사적 여성 인물을 많이 발굴해 내고 그녀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우 지 명 수 배

4월, 복도 입구에 영문과 워크숍 사진이 큰 종이 두 장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지나 제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며칠을 그 사진 옆을 지나치면서 구채플관을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사진 옆 종이에 써있는 '어떤 한 단어'가 낯설어서 유심히 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군대 용어인가도 했죠. '사진을 떼 가면 영창'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곳에는 '사진을 떼어 가면 영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창'이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선배들에게 그 뜻을 물어보았더니 모두 얼굴을 붉히면서 '나쁜 뜻'이라고만 했습니다. 끈질기게 물었더니 '너의 엄마가 창녀'라는 뜻이라고 주저주저하면서 알려주더군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그 불쾌감과 수치심 그리고 실망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사람들에게 그 뜻이 맞는지 확인만 했죠. '세상에 알도 안돼!' 라는 말만하면서 말이죠.



아직까지도 저는 그 게시물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비하해서 여학우들의 수치심과 불쾌감, 그 상처를 되려 관심으로 돌려보려 했던 건가요? 그래서 대중을 대하는 게시물에 버젓이 저런 욕설을 쓴 건가요? 그렇다면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그 '나쁜 뜻의 단어'라는 것에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저의 친구들도(여학우만이 아닌 남학우들도) 다수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 게시물에 대한 항의를 그 날 이후 4차례 정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그 게시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분노와 수치심을 되새김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오늘까지도 저는 그 날의 그 떠올리기 싫은 기분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송실 내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2004년 3월 어느날.

개강!! 방학동안 세웠던 나의 화려한 계획들을 실천할 때가 온 것이지!!
이번 학기 들어서 처음 듣는 수업. 두근두근.

'이번 학기에는 반드시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좀 해서 학점관리도 잘 해 보아야겠다' 라는 나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는 당신!! 그 이름도 멋진 교!!수!!님!!이여...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성폭력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잘 알고 계시더군요. 그렇다면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에 더하고 덜함이 없을 것도 알고계실 텐데 성폭력을 성희롱과 성폭력 등으로 수위를 나누는 것을 보아도 문제가 좀 있고 알아. 앗!! 근데 이건 또 뭐야?! 성폭력을 이야기 하면서 그 사건을 요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해내고 또 그것을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로 희화화 시키고 있잖아!! 지금 이 자리 어딘가에 앉아 있을 숨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잖아.

그리고 또 이건 뭐야?! 지금 수업시간에 성적인 농담으로 학생들을 자극하려 하는 거야?? 자위행위, 포르노 고작 그만 이야기를 가지고 장을 깨워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이런 수업시간 이라는 때에 말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자세히(!) 설명해낸다는 것.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자위를 했었는지, 그리고 청소년기에 절대 알도 안 되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하는 포르노를 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 하면서 오히려 개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암소사!! 그것 또한 성폭력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실까... 예휴---

성폭력이라는 것이 단순한 성기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째 지금 이 시간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권력과 영향력은 그냥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것이지.

대단한 기대와 각오를 가지고 임했던 나의 새 학기 첫 수업이 이렇게 그냥 끝나간다. 참해당한 이 힘없는 학생의 수업권. 이제 어쩌란 말인가. 우리의 수업권은...

난 어렸을 적부터 남자..라고 하면 너무 싫었다.

물론 편견이 짙고 지금은 조금씩 고쳐지고 있지만 어린 내 맘에 "싫다"라고 웃이 박혀있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 한 두개쯤은 있을꺼라 생각은 했지만.. 난 그냥 "불쾌했다"란 기억밖에 잘 몰랐다.

유치원 때.. 그땐.. 푸훗.. 기억이 어찌 나겠나만.. 나의 기억 속엔 그냥 아주 특별한 잠나는 추억 몇 개쯤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 난 골목대장?에 이르는 쾌활한 성격으로 살고 있었는데 남자, 여자아이 가릴 것 없이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 뭐..그때까진 성에대한 개념도 모르고 놀았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점점 내가 남자아이들과 신체적으로 달라지고 있을 때쯤.

상황은 역전되어.. 남자들이 힘이 세졌고.. 그 힘이 세졌다 라는 것은 내가 그전에 힘이 센 것과는 다른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6학때 우리 반 남자아이들은 무슨 파 같은걸 만들었고 뭉치면 용감해지는 그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힘으로.. 티비에서 나오는 언제나 "한 판 붙어??" 의 기세였고 - 남자아이들 중 그 파랑 안친한 아이들은 고개를 못 들고 다녔으니 여자아이들은 오죽 했을까..

우선 키가 큰 여자아이들의 가방을 뒤지고 다녔다. 키가 크면 성숙했으니 생리대나..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 있을꺼라며... 아이들의 관심사들은 그런 것이었고.

그러지마! 라고 말하는 이는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그냥 웃으며 지켜보는 이도 있었고..

또 종이를 가져와서는 어떤 여자아이에게 여자의 성기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쪽에 뭐가 있다고 설명해달라고도 했고 남자 같다는 여자아이에게겐 뽀뽀를 해대며 너 성격 좋다고.. 그런 말을 해댔다.

난 그게 무섭다..여자아이들 때린 적이 없으니 그냥 기분 나쁘다..고생각하며 살고 있었다.(실제로 때리기도 했다 --:: 눈이 찢어졌었지..)

지나간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흠..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나의 성격은 조용히 바뀌었다.
아니.. 사람과 친해지기 전까진 조용히 있으며 사람을 조금 꺼리게 됐고
특히 남자라면 도망치고 싶었다. 그 뒤 내가 초경을 했을 때도. 정말 울
면서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될 내 모습이 너무 싫었다. 여자라는 게 싫
었고 차라리 피해자가 되지 않는 남자이고 싶었다.

난 그 아이들과 직접적 관련이 없었는데 말이다.

나.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 또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 이런 일
들은 누가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정확히 누구이고 피해명은 무엇인가.

18세미만아네.. 에이~어렸을 때 일 이자나~ 하지만.. 난 사람을 피하게
됐고 여성임을 부정하며 계속 피해자로 살아왔다.

월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게 쪽팔려했고 내 자신이 싫었다.

흠..

그렇게 그 일년을 지내고 그중 많은 아이들이 같은 동네에서 마주치며..
피하며.. 그렇게 살고.. 여중 여고를 나왔다.. 다행이도 그런 기억들은 아
주 조금씩 잊혀져 갔다.



그리고..그냥.. 이런저런 이
유로. 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그 동네가 싫었다.
그래서 도망치듯 대학교로
왔다. 다른 기억은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대학교 소식을 보자 이런
문구가 있었다.

"남자분들~~~ 여장꾸미

기대회(이름이 기억안나네 :::)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너~ 남자선배 많이 있음 밥 좀 사 달라 그래~!!"

"너도 우리 앞에선 여자이고 싶구나 ㅋㅋㅋ"

휴..... 바뀐 게 없구나.

티비를 본다.

"이번 경기는 남자가 여자를 업고 얼마나 버티는지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여자분 하실 말씀? -- 〇 〇 오빠 파이팅 ^^ 조금만 더 힘내요."

"아~ 안 되는데요.. 그럼.. 여자분 애교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애교부
리자)네~ 통과 !!"

경기에서 힘이 센 여자를 보고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제 형이라고 불
러~!! (다웃는다.)"

뭐가 달라졌을까..

난 대학원을 가도 사회를 나가도 결혼을 해도.. 계속 이런 폭력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성폭해집니다.

by 짝루, 白李



2000년 9월 14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사망 5명 중 2명의 무연고자를 제외한 3명의 화재참사 유가족은 국가, 군산시, 포주를 상대로 총 9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수차례의 재판 끝에 2년 뒤인 2002년

『국가는 원고들에게 유가족 3명에게 6천 7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후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전라북도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가족에게 6천 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남.

이는 성매매피해여성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업주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판결 후 1년 6개월 만에

2002년 1월 29일

또 다시 군산 개북동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 발생.

14명의 여성이 인신매매 되어 감금되고 인권과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노예적 성매매를 강요당해 오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집단 사망하였다.

같은 해 유가족들은 억울함과 고통을 딛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 전라북도, 군산시,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반복되는 지리한 싸움 끝에 2004년 5월 14일 나온 결과는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각’ 판결.**

국가는 성매매를 방조하고 묵인해 온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기각’으로 판결.**

언제까지 파렴치한 태도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희생을 두고 보려는 것인가?

얼마나 더 희생되어야

그녀들의 절규에 귀 기울일 것인가.....

군산 개북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관련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규탄한다!!!

히니~

앨리스 ACTs 총여학생회와 화장실신문을 만들고 불이고 철거하고 정리하는 것을 함께 할 여자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매주 화장실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을 환영해요!!! 다른 많은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화장실신문을 만드는 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두근두근. 너무너무 기대되죠?? 나이, 학년,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여자친구라면 되죠!! 우리 함께 할래요~?!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전화는 820-0867 으로~

이메일은 aliceact@hanmail.net 으로

직접 찾아오시려면 학생회관 303-1호 총여학생회실로!!

히니~

매달매달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이야기 해 본다. 어떨게?? 무슨 소리냐구?? 총여학생회에서 매체를 만들고 있거든.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것 말야. 우리 함께 다음달 매체를 만들어보지 않을래?? 앨리스 ACTs 총여학생회에서 함께 매체를 만들 여자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함께 매체를 만들면서 많은 고민도 나누고...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전화는 820-0867 으로~

이메일은 aliceact@hanmail.net 으로

직접 찾아오시려면 학생회관 303-1호 총여학생회실로!!

신지 - 음.. 도디어 첫번째 매체가 나왔네요. /^^ 좋아요 -
얼마 만에 내는 거인지. : . 그동안 너무 게을렀죠. -T..
그래도.. 우리들의 첫번째 매체가 나와서 너무 좋아요-!^^
다음 매체에는 좀더 다양한 사람들의 글이 실렸음 좋겠어요-!^^

사이 -

생각을 글로 옮긴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네요. 미하. ^^

vivo - 개역을 견디려 하는 머뭇거려지는 발길

견뎌낸 걸까

오아.. 제글이 매체에 실려다니.. 신기해요. ^^

나름대로 열심이 쓴다고 쓰긴 했는데..

잘 쓰게지.. : . 모르게네요. : . 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글도 쓰고.. 좋아요-!^^ - 마이

남 몰래 동감할 당신을 위해 - film

문통 - ...

남이 - 두근두근..눈물나-T

남이.. 아직 많이 부족해.

하지만 그래도 당신들과 함께해서 다행이야.

그마워요.

白李 - 무위도식한게가 미안하오

불면증치료제, 속안쓰면 약, 자신감 회복하는 약, 씨니컬해지는 약.
자 하나씩 여서 주위 삼켜, 이 악마들만 몰려치면 당신들은 완벽해.
이렇게 완벽하게 나는 왜 기여든거지?

- ★ -

지니 - 글을 쓰다는게 쉬운 것 같았는데 막상 써보니 막막하고 어렵고 부족하며
라고요 수고하셨어요 모두들..

포지그림 출처 - 신아의 이상한 나라 <http://shinazip.com/>